

## 현재 올해 세수상황을 지속 점검 중이며, 구체적인 재원 보전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### <보도내용>

- 2024.9.2. 연합뉴스는 「올해 세수펄크 최대 33조.... 외평기금 등 기금서 13조 끌어와 메운다」 기사에서,
  - 정부가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최대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고, 외평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13~14조원을 끌어와 세수 결손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<기획재정부 입장>

- 현재 올해 세수상황을 지속 점검 중으로, 구체적인 세수결손 규모나 재원 보전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분석과	책임자	과 장	윤수현 (044-215-4120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혁 (del ta008@korea.kr)
담당 부서	국고국 국고과	책임자	과 장	류중재 (044-215-5110)
		담당자	사무관	전형용 (jeonzzong@korea.kr)